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1월)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1월)으로 새해 예배의 마음을 정돈해 드립니다. 1월은 ‘처음’이 유난히 많은 달이라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찾아옵니다. 이 글은 주일예배, 찬양예배, 새벽기도, 가정예배까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표기도문을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바꿔 읽어도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했으니, 오늘 저장해 두고 공동체와 가정에 평안을 흘려보내세요.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1월) 1 새해감사와 결단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43:19)

새해의 첫 주일, 우리를 다시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의 숨가쁜 걸음과 지친 마음까지도 주께서 아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와 회개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시작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한 해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 새해의 문 앞에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계획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산만해지고, 다짐이 커질수록 쉽게 낙심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을 이루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해에 말로 상처 주었던 일, 무관심으로 외면했던 이웃, 습관처럼 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회개가 감정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돌아서는 발걸음으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에게는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화해가 필요하다면 자존심보다 사랑을 택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와 가정의 ‘관계’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배가 익숙해져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작은 섬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사역의 자리에 서 있는 이들에게는 겸손을, 지쳐 있는 이들에게는 쉼을 주시며, 새로 온 성도와 다음 세대가 환대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결단이 스스로를 과시하는 표지가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넘어져도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잘되는 날에는 더 낮아져 이웃을 세우게 하소서. 새해의 모든 걸음이 주의 나라를 향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1월) 2 교회와 목회자 위로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5)

주님, 공동체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월은 새해 사역을 준비하며 마음이 분주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숫자와 성과로 서로를 재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준비한 것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가 강단에서 흘러가게 하시고, 설교자의 마음이 먼저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피곤과 염려가 쌓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가정과 건강도 지켜 주셔서 오래도록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의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의 손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흘린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섬김이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의견이 다를 때에도 상처를 남기는 말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함께 구하는 성숙함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입시와 진로, 취업과 경제적 부담 속에서 마음이 눌리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그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만남이 되게 하시며, 교사들에게는 사랑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가 지역을 향해 문을 열게 하소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 홀로 지내는 어르신,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게 하시고, 복음의 말과 삶이 함께 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교회의 주인 삼지 마시고, 주님만 왕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1월) 3 나라와 경제, 일터

"공의를 물 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24)

주님, 나라와 민족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1월의 새 출발 앞에서 많은 이들이 일터와 가정의 생계를 걱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불안을 주께 맡기며, 이 땅에 공의와 자비가 함께 흐르게 하옵소서. 분열과 혐오가 커질수록 교회가 먼저 화평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 경제의 무게로 숨이 막히는 이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물가와 주거, 대출과 이자, 고용 불안으로 밤잠을 설친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부어 주시고, 당장 필요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구직하는 이들에게는 문을 열어 주시며,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는 정직과 지혜를 주셔서 사람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주님, 일터의 문화와 관계를 주께서 새롭게 하옵소서. 성과를 위해 서로를 소모하지 않게 하시고, 상사와 동료, 고객과 거래처 사이에 존중이 자라게 하옵소서. 작은 부정과 편법을 "다들 그러니까"라며 넘기지 않게 하시고, 손해처럼 보여도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선택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지도자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권력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게 하옵소서. 약자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청년과 노년, 노동과 돌봄의 현장을 고르게 살피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비난이 아니라 중보가 되게 하시며, 교회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화내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내는 성도들의 손을 붙드소서. 무너질 듯한 날에도 주님이 함께하심을 알게 하시고, 작은 믿음의 선택들이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1월) 4 가정예배와 관계 회복

"내 집과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15)

주님,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될수록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주님, 우리 집이 완벽해지길 구하기보다 주님의 평안이 머무는 집이 되길 원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사랑이 담기게 하시고, 예배가 집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부부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서로를 가장 쉽게 함부로 대했던 시간을 회개합니다. 속상함을 쌓아두지 않게 하시고, 대화가 끊길 때마다 다시 손 내미는 용기를 주옵소서. 상대를 바꾸려는 말보다 내가 먼저 변하게 하시며,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가 다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주님,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비교와 성적, 성취로 아이를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읽어 주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안전한 집이 되게 하시며, 어른들도 지칠 때는 주님 앞에서 눈물로 솔직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있는 가정과 상처가 있는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혼과 사별,

질병과 돌봄으로 무너진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깊이 스며들게 하시고, 교회가 그들의 외로움을 덜어 주는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명절과 연휴가 다가올수록 더 외로워지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연락하고 찾아가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집안의 갈등이 끝없는 반복이 아니라, 은혜로 끊어지는 경험이 되게 하시고, 작은 기도가 쌓여 집의 공기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1월) 5 병상과 마음의 회복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28)

주님, 아픈 몸과 지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오늘도 주님께 나아옵니다. 1월의 차가운 공기처럼 마음이 얼어붙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괜찮다'는 말로 버티기만 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회복의 길을 한 걸음씩 걷게 하옵소서. 주님,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소서. 수술과 치료를 앞둔 두려움, 통증으로 잠들지 못하는 밤, 결과를 기다리는 불안 속에서도 주님의 손이 그들의 손을 잡고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의료진에게는 지혜와 집중력을 주시고, 보호자들에게는 지치지 않는 힘과 돕는 손길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울과 불안, 공황과 번아웃으로 숨이 가빠지는 순간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지혜로운 선택임을 알게 하시고, 필요한 상담과 치료, 공동체의 돌봄으로 실제적인 회복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아픔 앞에서 서둘러 정답을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누군가의 고통을 평가하는 말로 상처를 더하지 않게 하시고, 대신 함께 울고 함께 기다리는 사랑을 배우게 하옵소서. 회복이 더딜 때에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작은 호전도 감사로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회복된 삶이 다시 누군가를 살리는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선물이 되게 하시고, 건강할 때에 더 겸손히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